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사찰음식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국사찰에는 일주문이란 문은 있지만
출입을 막는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한국사찰은 이처럼 막히고 가림이 없는
[無遮] 곳입니다. 한국의 사찰에서 먹는
음식의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고 식탐을 채우기
위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아함경》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
(法:진리)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 상의상관(相依相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이와
같아서 다른 생명체의 생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명체들을
함부로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담겨있는
모든 공력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한국 사찰음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의 불자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육식문화가 지구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생각과 이를 반성하여 또 다른 반대급부로 채식을 해야 한다는 주의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음식도 이러한 대안적 음식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행사를 한국의 사찰음식이 마치 유일한 대안인 양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제일 중요한
까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고,
많은 인연들의 수고로움과 감사함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성찰을 해 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성찰을
통한 자각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공동체문화의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100년 넘는 문화교류
동안 한국의 사찰음식이 공식행사를
통해 미국에 선을 보이는 것은 처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1세기가 넘도록
사찰음식이 문화의 한 장르로써 공식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연기적
관점으로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음식이
새로운 세기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의 사찰음식을 통해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성찰하여**

**모든 존재들이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지구촌이 하나의 꽃[世界一花]으로 재탄생
하는 출발점이기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공양의식 가운데
봉발게를 올립니다.**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위식 법희충만
(若受食時 當願衆生 禪悅爲食 法喜充滿)

**이 공양을 받을 때,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선열로써 음식을 삼아 진리의
기쁨 가득하여지이다.**

**불기2554년 9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